

‘2연패 겨냥’ KIA, ‘대권 도전’ 삼성·LG… 한화, 새 구장서 가을야구 다짐

2025 프로야구 개막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치열한 순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롯데 자이언츠-LG 트윈스(서울 잠실구장), 두산 베어스-SSG 랜더스(인천 SSG 랜더스필드), 한화 이글스-KT 위즈(수원 KT위즈파크), NC 다이노스-KIA 타이거즈(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개막 시리즈를 시작으로 6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10개 구단은 팀당 144경기를 치르며, 1위부터 5위까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지난 겨울 프리에이전트(FA) 계약과 트레이드 등을 통해 전력을 강화한 각 구단은 스프링캠프와 연습경기를 소화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고, 시범경기를 끝으로 시즌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KIA는 통합 2연패에 도전한다.

올해도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KIA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다.

필승조 장현식이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어 LG로 떠났으나 트레이드로 영입한 '특급 불펜' 조상우로 빈자리를 채웠다.

아울러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함께 선발 원투펀치 역할을 해줄 새 외국인 투수 아담 윌러가 가세했고,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절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은 이의리는 6월 복귀한다.

KIA의 공격력도 더 강해졌다. 메이저리그 통산 455경기에 출전해 88개의 홈런을

KT도 우승 도전장… 두산·롯데·SSG·NC 포스트시즌행 노려

피치클록 도입·ABS 조정… 연장 12회에서 11회로 축소 운영

쏘아 올린 패트릭 위즈덤이 올해 KIA 타선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 KIA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한 삼성은 탄탄한 선발 마운드와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다시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다.

삼성은 FA 선발 최대어였던 최원태와 4년, 최대 70억원에 계약해 마운드를 보강했다. 최원태는 통산 217경기에서 78승 58패 평균자책점 4.36을 작성한 전문 선발 요원이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외국인 투수 코너 시블드와는 결별했지만, 2년 동안 키움 에이스로 활약했던 아리엘 후라도와 계약하며 공백을 지웠다. 후라도의 2시즌 통산 성적은 21승 16패 평균자책점 3.01이다.

더구나 전전후 내야수 류지혁과 베테랑 외야수 김현근,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와 재계약하며 올해도 짜임새 있는 타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LG 역시 투타 전력이 탄탄하다.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요니 치리노스, 임찬규, 손준영이 선발진의 한 축을 맡고, 불펜 마운드에는 김진성, 김영우, 정우영, 백승현과 이적생 장현식, 김강률이 버티고 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김현수와 오지환, 박해민, 박동원 등이 중심을 잡고, 오스틴 단과 문보경, 홍창기 등이 힘을 보탠다.

시범경기 7경기에서 6승을 끌어 담으며 1위로 마친 KT 역시 눈길을 끈다.

지난 겨울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

은 사이드암 선발 엄상백과 내야진의 주축이었던 심우준이 나란히 한화로 떠났으나 SSG와 트레이드를 통해 좌완 선발 오원석을 품었고, FA였던 베테랑 내야수 허경민을 데려왔다.

여기에 지난해 키움에서 13승을 수확한 '검증된 외인' 앤마누엘 데 헤이수스와 손을 잡았다. 헤이수스는 윌리엄 쿠에바스와 고영표, 소형준과 함께 KT 선발진을 이끈다.

올해부터 새 경기장인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한화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을 노린다.

한화는 FA 시장에서 엄상백과 심우준을 각각 4년 총액 78억원, 4년 총액 50억원에 영입하며 전력 보강을 했다.

검증된 선발 요원을 로테이션에 추가한 한화는 류현진과 엄상백, 문동주로 이어지는 강력한 토종 선발진을 꾸리게 됐다. 이들이 동반 활약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2023시즌 홈런왕 노시환, 2년 연속 20홈런을 친 채은성으로 구축한 중심 타선의 위력은 다른 팀에 밀리지 않는다.

두산과 롯데, SSG, NC도 5강 이상의 성적을 바라본다.

지난해 외국인 투수 잔혹사에 시달렸던 두산은 새 얼굴 폴 어빈과 잭 로그의 호투가 절실하다. 시범경기를 통해 예열을 마친 새 외국인 타자 제이크 케이브도 제 몫을 해줘야 한다.

게다가 1번 타자 김민석과 3루수 강승



호, 시범경기 타율 1위를 차지한 내야수 오명진의 활약도 중요하다.

지난해 7위에 그친 롯데는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2년 차를 맞는다.

윤동희와 나승엽, 고승민이 팀의 주축 타자로 빠르게 자리매김했고, 빅터 레이에스, 전준우, 손호영, 황성빈까지 포진한 타선은 상대에 위협적인 존재다.

찰리 반즈와 터커 데이비스으로 원투펀치를 개편한 롯데는 박세웅, 김진욱 등으로 꾸려진 토종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SSG는 시범경기에서 선발 드류 앤더슨과 김광현이 난조를 보였지만, 조병현과 서진웅, 김민 등 구원진이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타자들의 타격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좋다. 최정과 이지영이 홈런 2방씩을 폭발했고,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최지훈, 안상현이 타율 4할 이상을 쳤다.

시범경기 최하위에 머무른 NC의 타격감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팀 타율 0.229로 9위에 머물렀다. 팀 평균자책점은 4.96으로 이 부문에서도 9위다.

새 외국인 투수 로건 엘런과 라일리 톰슨의 빠른 적응과 투타의 조화가 관건이다.

키움은 시범경기에서 13개의 홈런을 터트려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외국인 타자 2명을 영입하며 공격력 강화에 성공한 키움은 투수진의 활약이 올 시즌 키포인트다.

올해 정규시즌부터는 피치클록이 정식 도입된다.

투수는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 내에 투구해야 한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타석당 타임아웃 횟수는 2회까지다.

올해 변경된 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장전 이닝 축소다. 정규시즌 12회까지 진행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KBO리그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스트라이크존은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이를 0.6%씩 하향 조정하고, 신장 180cm의 선수의 경우 약 1cm씩 스트라이크존이 낮아진다.

포스트시즌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포스트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노게임, 강우콜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규정만 적용한다.

단,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기존 팬성 경기에 앞서 진행하지 않고 일시정지 이닝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 팬성 경기는 다음 날로 순연된다.

또 한국시리즈 진출 팀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2-2-3(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플레이오프 승리구단 홈구장-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홈 경기 팬성으로 열린던 한국시리즈를 2-3-2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올해의 감독상'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퓨처스(2군)리그 챔피언결정전 제도를 신설했다. 남부리그 1위와 북부리그 1위 구단이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 팀을 가린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정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정 GS건설

CGI (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062) 607-8338

광주시, 야구 특화관광 ‘야구광 트립’ 출시

2025 광주방문의 해·프로야구 KIA 홈경기 연계 관광상품

경기 전후 짜투리시간 무등산·동명동 등 대표관광지 투어

강기정 시장, 22일 프로야구 광주 홈개막전 홍보활동 펼쳐

#. 서울에 사는 KIA 타이거즈 팬 김 모 씨는 친구와 함께 KIA 홈경기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야구광 트립’ 관광상품을 통해 보다 쉽게 표를 구한 데다, 짜투리시간에 동명동, 양림동,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원광주’를 느낄 수 있는 여행으로 즐거움이 두 배가 됐다.

‘스포츠 도시 광주’가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를 연계한 야구 특화 관광상품 ‘야구광 트립’을 출시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관광공사는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을 출시, 오는 4월부터 여행사를 통해 연중 판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구광 트립’은 빛고를 광주의 ‘빛광(光)’과 야구에 열광하는 ‘미칠광(狂)’의 동의적 표현으로, ‘야구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란 의미를 담았다.

이 상품은 광주에 와서 야구만 보고 돌아가기 아쉬운 이들을 위해 KIA 타이거즈 홈경기나 있는 날, 경기관람 전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광주의 대표 관광지 동명동·양림동 권역, 전일빌딩245, 무등산 일원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높은 인기로 관람권을 구하기 힘들어진 이들이 보다 손쉽게 표를 구할 수 있다. 또 광주관광공사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가격도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영광군, 2025 영광 키즈 오픈 테니스대회 개최

전국 테니스 유망주들의 뜨거운 열리, 영광에서 열린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 및 한수원 사택 테니스장에서 ‘2025 영광 키즈 오픈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꿈나무테니스재단과 한국초등테니스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전 단식 경기로 진행되며, 전국 약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 병아리부,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나뉘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주말리그 3급인 이 대회로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의 3·4급 포인트가 랭킹에 반영되며 어린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 ‘2025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름철 열릴 이 대회는 어린 선수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1월 테니스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데 이어 이번 3월·8월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광/이현식 기자